

주주 환원 부재와 개미들의 눈물 ?



신 세 철 역
쉬운 경제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저비용 기업자금 조달에 주력하여 기업 경영 성과를 일반 주주에게 배분하기보다는 기업 확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기를 독려하였다.

기업이 괄목할 성과를 내고도 소액주주들에게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투자자들은 경영성과에 상응하는 배당금 수령 같은 지극히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주식 매매차익(capital gain)만을 노리는 꼴이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매 회전율이 유달리 높고 주가 변동폭이 세계적으로 높은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개미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까닭 아닐까?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가리지 않고...

기업이 지속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주주들이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 사실상 대들보인 삼성전자가 26년 2분기 주주 배당금으로 주당 374원씩 배당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근로자 특별성과급으로 1인당 연평균 임금의 수년 치가 되는 6억 원을 지급했음을 생각할 때, 종업원은 극진히 모셔야 할 상전처럼 일반 (소액)주주는 하찮은 하수인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버리기 어려웠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보다 먼저 보너스를 왕창 지급한 하이닉스의 2분기 배당금도 3백여 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금 추정액 1,496(374×4)원은 2분기 말 현재 주가 334,000원의 0.45%의 불과하고 회사채(3년, AA-) 금리 4.462%의 1/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기배당 기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로지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뼈아픈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적분석 투자는 성행하지만 중장기 본질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까닭이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하기보다 그저 주가 변동 방향을 매일매일 점쳐야만 투자 전선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울고 웃는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 조바심을 내다 못해 피가 곤두설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가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증권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중장기로 보유하며 기대하는 소득을 올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며 시간이 지나면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지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 손실을 매꾸주는 독지가나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소액주주는 기업의 주인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격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아래서 미래의 금융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량주식 장기보유로 큰 수익을 실현하여 화제가 된 사례가 어쩌다 있다고 화제가 되지만, 증권시장에서 명성을 날리던 투자전문가들이 노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까닭 아닐까?

/'육망으로부터의 자유' 저자

원조반던 한국,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다



김지수 접
원 관 회
(산업부)

‘한국이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한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무기 원조에 의지했던 한국이 76년 만에 미국의 포병 전력 강화에 참여하게 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자주포 ‘K9MH’ 미국 진출은 그 자체로 자랑할 만한 성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 육군과 체결한 계약에는 시제품 6문 공급과 추가 12문에 대한 옵션이 담겼다. 앞으로 최대 4년간 시험·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국산 완성형 무기체계가 미 육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력을 보강하던 단계를 넘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직접 제시하게 된 것이다.

미국 진출이 대단한 이유는 시장 규모에만 있지 않다. 미국은 자국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촘촘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해외 기업이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무기 성능은 물론 미군 체계와의 호환성,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장기적인 정비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미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향후 다른 국가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높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동안 K방산의 성장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가 주로 거론됐다. K9MH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기존 K9을 그대로 판매하는 대신 자동화 포탑을 차륜형 플랫폼에 적용해 미 육군이 요구하는 기동성과 운용 방식에 맞췄다. 완성된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수요국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셈이다.

미 육군이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흐름을 포착해 개발에 착수하고 미국 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준비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판단도 주효했다. 방위사업청도 사업 초기부터 계약 체결까지 미국 측과의 협의와 수출 절차를 지원했다. 축적된 기술력과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정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미국 방산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을 기회를 잡았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미군의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현지 생산과 정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시제품 공급을 후속 양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미국에 처음 자주포를 공급했다는 기록보다 미국이 한국 자주포를 계속 선택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76년 전 미국의 지원은 한국이 국방력을 세우는 밑바탕이 됐다. 이제 한국은 자체 기술로 미국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기회를 얻었다. 양국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서 한국 방산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wkt@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 (음 7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0년생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72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84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49년생 연인,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61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73년생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85년생 애정운이 갑니다.



50년생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62년생 대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74년생 발전과 명예는 현재로서는 환상일 뿐입니다. 86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으니 여행을 떠나세요.



51년생 상당히 기분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63년생 하루 일과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75년생 현금과 의외의 수입으로 오만해 질 수 있습니다. 87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안됩니다.



52년생 꾀하는 일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64년생 다음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6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났습니다. 88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53년생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65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77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갑니다. 89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54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6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다른 일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55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절대 금물입니다. 79년생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91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56년생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일들을 격게 될 것입니다. 68년생 금전운은 무난합니다. 80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92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조심하세요.



57년생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81년생 혼자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습니다. 93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58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70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2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94년생 바른 마음 기질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59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1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3년생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다른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95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법인카드의 명암

많은 직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 관련 비용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직장인들이 법인카드를 종종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주말에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생활품을 구매하면서 이 정도는 관철을 짓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필자가 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자산이다. 업무에 따른 필요 때문에 개인에게 임시로 맡겨진 것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허락 없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횡령죄는 처벌도 무거워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거나 반복했을 때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횡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거래처를 접대하거나 출장 중에 사용한 비용도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춰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카드는 직장생활 하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유용함을 즐기기에 앞서 법적인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개인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다. 법적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심코 불법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한다. 법인카드처럼 법적 규정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 정도는 관철을 짓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법인카드의 편리함에 앞서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8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서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퍼즐과 재미있는 출제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6
			4	1	3	9	5	
		7				3		1
		6				2		
8		2				7		
		3	8	2	4	6		
2					1			9

1	4						6	2
3				4	6			8
	2			5				
	3		9		1		5	
					3			1
2			8	1				7
6	1						8	5

6	8	7	1	9	2	8	9	2
2	9	8	9	6	8	1	2	7
2	1	9	7	2	8	8	9	6
9	9	2	8	7	6	2	1	8
7	8	2	1	9	9	9	6	8
1	6	8	8	9	2	2	7	9
8	2	9	6	8	1	7	2	9
8	7	6	2	2	9	9	8	1
9	2	1	9	8	7	6	8	2